사바카이도의 다양한 경로

에도 시대(1603 년~1867 년) 고등어는 와카사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. 일본해에서 잡힌 신선한 고등어는 보존을 위해 소금절임이나 발효과정을 거쳐 원거리 시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. 그 물고기의 대부분은 당시 수도였던 교토로 보내졌는데, 이 때문에 와카사와 교토를 연결하는 도로는 '사바카이도'(고등어길)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

교역로망

'사바카이도'라는 이름은 하나의 도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, 실제로는 여러 교역로가 갈라진 구물형상이었습니다.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와카사카이도는 구마가와주쿠를 지나 구쓰키, 오하라, 야세 등과 같은 마을들을 경유해 교토로 이어져 있었습니다. 항구도시인 오바마에서 교토까지의 최단 경로는 오뉴 강을 따라 난 산길로, 하리하타고에라는 고개를 통과하는 길이었는데, 이 길은 매우 험난해서 그곳을 여행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. 다른 길은 와카사와 교토 북부 단바 지역 및 오미국(현재의 시가현)의 비와코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.

교토까지 단 72km

와카사의 옛 표현 중에 '교토가 멀다고는 하나 십팔리'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말은 교토까지의 거리가 18 리=약 72km 라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. 산을 넘는 어려운 여행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와 기타 물자를 사바카이도를 따라 운반하는 경험 풍부한 운반인들은 단 하루 만에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. 유명한 가인 요사 부손(与謝蕪村, 1716~1784 년)도 사바카이도의 모습을 '여름산과 운반에 능숙한 와카사 사람(와카사 사람들은 여름의 산을 왕래하는 것에 익숙하다)'이라고 노래했습니다.